

일본 호쿠리쿠의 테크노 페어 09 – 신상품·신기술을 공개

일본 호쿠리쿠(北陸)의 기술 교류 테크노 페어 실행 위원회(技術 交流 techno-fair 實行 委員會)가, 2009년도에 20번째가 되는 테크노 페어(techno-fair) 09를 개최하고 산·학·관(産·學·官)이 한자리에 모여 호쿠리쿠 기술 교류를 추진하였다. 장소는 후쿠이 시내의 현 산업 회관(縣 産業 會館)을 메인 회장(main 會場)으로 하고 신상품·신기술을 발신하고 상담회(商談會)를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번 개최의 테마는 ‘비즈니스 찬스(business chance)는 기술로 잡아라.’로 하고, 9개 연구 기관, 86개 기업, 대학·고등 전문대 등의 18개 연구실, 17개 산업 단체 등 130개소가 참가하였다. 첫날은 오전 중부터 참관자로 북적거렸다. 기술 시즈(技術 seeds)나 연구 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참관자(參觀者)와 출전자(出展者) 사이에 비즈니스 매칭(business matching : venture 기업 투자가나 제휴 기업이 조화, 협조를 상의함)을 목표로 한 의견 교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섬유 관련으로는 사카이 오벡스, 세렌, 후쿠이시 오지마초(福井市 大島町)의 NSKO, 아이치현 이와쿠라시(愛知縣 岩倉市)의 CSS, 과학 기술 진흥 기구(科學 技術 振興 機構) JST 이노베이션 플라자(innovation plaza), 이시카와(石川)·새틀라이트(satellite) 시가(滋賀), 도야마 현립 대학(富山 縣立 大學), 후쿠이 산업 지원 센터(福井 産業 支援 center)가 출전하였다.

사카이 오벡스는 현(縣) 및 후쿠이 대학, 과학 기술 진흥 기구와 공동 개발한 경량(輕量)이면서 강성(剛性 : 변형되지 않고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

는 성질)이 높고 팽창성(膨脹性 :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아주 낮아, 훌륭한 알루미늄 함침 탄소 섬유 개섬 직물 복합 재료(aluminium 含浸 炭素 纖維 開纖 織物 複合 材料)의 용도 개척을 제안하였다. 또한 태양 공업(太陽 工業)과 공동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는 리사이클 소재 가방 ‘뚝데 탱크’를 어필하였다.

세렌은 잉크 젯 프린터(ink jet printer)를 사용한 가식 시스템(加飾 system)의 ‘차세대 비스코 텍스(次世代 visco-tex)’는 다양한 여러 소재를 짜 맞춘 토털 코디네이트(total coordinate : 전체적인 조정)이다. 또한 온 디맨드 제조(on demand 製造: 注文에 따른 製造)에 의한 재고리스(在庫less)·생자원화 실현(省資源化 實現)의 환경 배려형을 제안하였다. 섬유를 봉입한 세라믹스와 금속 이온의 W 파워로 냄새를 흡착 분해하는 ‘이노도르 퀵 순감 소취(inodore quick 瞬感 消臭)’를 소구(訴求 : 구매자의 욕구가 생기도록 함)하였다.

후쿠이 산업 지원 센터는 호쿠리쿠 3개현 섬유 산업 클러스터(cluster : 集團) 협의회의 판로 개척 부회 사무국(販路 開拓 部會 事務局)으로서 ‘비 의류 전개 상류, 하류 네트워크 사업(非 衣類 展開 上流, 下流 network 事業)’을 소개하였다. 매칭 상담회(matching 商談會)의 활용을 포함하여, 적합한 시즈(seeds)를 제안하였다.

이 외에 CSS는 자카드 제직용 컨트롤러(jacquard weaving controller), NSKO는 캐디백 자수 가공 전용 머신(caddie-back 刺繡 加工 專用 machine)을 어필하였다.♣